



 <p>신용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p> <p>http://www.emerics.org/</p> <p>2019. 03. 27. 동남아시아</p>	<p>「동향세미나」</p> <p>태국 총선 정국 親군부 vs 親탁신 대결 구도 심화</p> <p>작성 이재호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p>
--	--

- 태국은 2014년 5월 19번째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약 5년간 군부정권 집권 기간 동안 민정이 양을 위한 총선이 5차례 연기된 바 있으나 3월 24일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 다수에 걸친 총선 연기로 인해 3월 24일 총선 실시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바 있으나 3월 17일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3월 24일 본 선거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총선 유권자 5천 1백만 명 중 부재자 투표 신청자가 260만 명에 달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90%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음.
- 이번 총선에는 정권 연장을 노리는 親군부 진영과 정권교체를 親탁신(Thaksin)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親군부 진영인 팔랑쁘라차랏당(Phalang Pracharat Party)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음.
- 2001년 탁신 전 총리 집권 이후 친서민 인기영합 정책으로 서민층의 지지도가 높은 친탁신 계열 정당이 모든 총선에서 승리해왔으나, 2014년 집권한 現정권이 2017년 개헌을 통해 5년간 상원 250명에 대한 임명권을 확보해 하원 126석을 추가할 경우 정권 연장이 가능한 구조가 형성됨.
 - 태국 의회는 상원 250석, 하원 500석(지역구 350석, 비례 150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선 후 신임 총리 선출은 상하원 전체 과반수인 376석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됨.

그림 1. 태국 신임 총리 선출에 필요한 의석 구조

상원(250명)	하원(500명)	
전원 군부 임명	親군부 정당 과반 126석	親탁신 정당 과반 376석

자료: 필자 작성.

- 이번 총선으로 가장 많은 하원 의석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은 親탁신(Thaksin) 정당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이나 총리 선출을 위한 하원 376석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친탁신 프어타이당은 다수의 자매당 연합체를 결성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

을 준비했으나, 주요 자매정당인 타이락사찰당(Thai Raksa Chart Party)이 공주를 총리 후보로 채택한 것을 사유로 태국 헌법재판소가 해당 정당 해산 및 지도부 14명에게 10년간 정치활동 금지 판결을 내려 친탁신계 연합체의 의석 확보에 적신호가 켜짐.

표 2. 태국 총선 경쟁 구도 개요

정당	프어타이당(親탁신)	민주당(보수당)	팔랑쁘라차랏당(親군부)
총리후보	쿤잉 수다랏(57)	아피싯 웨짜찌와(54)	쁘라웃 찬오차(64)
예상 의석수 ¹⁾	140~150석	80~90석	60~60석
지지율	24%	14%	9%
주요 공약	· 농산물가격 30% 인상 · 쌀 보조금 5,000Bt/Ton · 군부정권 주요 정책 철회	· 최저소득(연간 12만 바트) · 아동고령 수당 1,000Bt/월 ·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	· 최저임금 30% 인상 · 빈곤층 사회복지카드 발급 · 지역 특화 경제특구 건설
비고	· 동북지역, 서민층 지지 · 레드셔츠 시위 주도	· 2009~2011 집권 · 수도권지지, 옐로우셔츠 시위	· 前육군참모총장 · 2014년 쿠데타 주도

주: 1) 지역구 의석 수

자료: FT 컨퍼텐셜 리서치(2019.2.15.)

□ 친군부 대 친탁신 경쟁구도 이외에도 태국의 최장수 보수주의 정당인 민주당이 어느 진영과 연정을 구성할 것인가도 주목을 받고 있음.

- 이번 총선에서 약 80~90석 내외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은 현군부 정권의 집권 연장은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아피싯(Abhisit) 총재 집권 시기인 2008~2011년 동안 친탁신 단체 레드셔츠(Red Shirt)의 반정부 시위로 국제회의 취소,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 극심한 정정 불안을 경험한 바 있어 어느 진영과 연정을 구성할지가 향후 총리 선출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태국은 쿠데타, 반정부 시위 등 정정불안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심리 위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왔으며, 향후 총선 후 연립정부 구성 방향, 선거결과 승복 여부 등에 따라 태국 정국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태국은 2006년 군부 쿠데타 발생 후 친탁신 진영과 반탁신 진영간의 갈등으로 인한 대규모 시위로 수차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정정불안이 반복되면서 아세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에 머물러왔음.
- 총선 후 총리 선출을 위한 정당간 연립정권 수립 방향, 총선 결과 승복 여부 등에 따라 정국 안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EMERiCs**